



ML서도 점핑... 점핑...

9일 미국 뉴욕 양키스타디움에서 열린 미국 프로야구 볼티모어와 양키스의 경기에서 볼티모어의 중견수 아담 존스와 우익수 닉 마카키스, 외야수 벨스 크루즈가 승리를 거둔 뒤 기뻐하고 있다. /연합뉴스

KIA, 色 달라졌다



이대형



김주찬

‘최하위 후보’ KIA의 2014시즌에 긍정적인 변화가 있다.

매년 우승후보로 꼽혔던 KIA였지만 올 시즌은 달랐다. 팀을 대표하던 윤석민(볼티모어)·이용규(한화)가 떠났고 여전한 마운드 부상과 공백으로 4강의 전력으로 평가받으며 시즌을 출발했다.

기대보다는 우려가 많았던 시작이었지만 초반 흐름이 나쁘지 않다. 기대 이상의 호랑이 저력을 보여주고 있다. 2013년과는 다른 두 가지가 KIA의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번트 대신 빠른 발을 활용한 공격 야구, 만만치 않은 기싸움이 그 두 가지다.

지난 2년 KIA의 공격은 사람들의 바람과 달리 거꾸로 갔다. ‘지키는 야구’를 명제로 한 ‘스몰’ 야구가 전개되면서 예전의 화끈했던 공격성을 잃었다. 설상가상 불펜의 잦은 붕괴로 ‘지킬 점수’를 만들어내지 못하면서 ‘지키는 야구’는 유명무실했다. 보내기 번트를 중심으로 한 확일화 된 작전과 스윙은 타선을 경직시켰다.

시즌 초반이기는 하지만 KIA 공격색이 달라졌다. 빠른 1·2·3번을 중심으로 한 트리플 세터 또는 빠른 9·1·2를 배치한 변형 트리플 세터를 중심으로 상황에 따른 공격적인 스피드 야구를 펼치고 있다.

톱타자 이대형이 출루 해 상대 배터리를 괴롭히면 김주찬과 신종길의 장단을 맞춘다. 주자를 진루시키기 위해 굳이 아웃카운트 하나를 버릴 필요가 없다. 알아서 이대형이 진루를 하거나 상대 수비수가 실수를 하고 있다. 치고 달리는 작전은 기본이고 짜릿한 더블 스틸도 연출됐다.

지난 8일 넥센과 경기에서 4-4로 맞선 8회, 적극적인 공격과 스피드가 승부의 추를 기울였다. 9번 김선빈과 이대형의 연속안타로 만들어진 무사 1·3루에서 김주찬이 좌전 적시타를 때리며 5-4를 만들었다. 이어 넥센 마운드를 침몰시킨 명품주루가 나왔다. 무사 1·3루에서 더블스틸이 나오면서 김주찬은 2루로 향했고 이대형은 홈을 밟았다. 뜻밖의 실점에 넥센은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다. KIA는 흔들리는 넥센을 상대로 만루홈런까지 터트리며 13-9의 승리를 거

왔다.

화끈한 공격으로 허약한 마운드를 방어하는 KIA 식의 ‘진짜 지키는 야구’가 전개되고 있는 것이다.

기싸움에서도 쉽게 밀리지 않는 모습이다. 개막 후 삼성·두산·NC·넥센을 만난 KIA는 첫 대결에서 모두 승을 가져왔다.

특히 지난 시즌 4승12패로 최악의 전적을 기록한 삼성과 역시 3승11무2패로 고개를 숙였던 전적 두산

을 첫 만남에서 제압했다. 삼성에게는 1점 차 리드를 지키며 1승1패를 거뒀고, 두산전에서는 워닝 시리즈를 가져왔다. 삼성·두산 트라우마에서 벗어난 KIA는 베스트 라인업을 최대로 가동시키면서 끝까지 경기를 긴장감 있게 운영하고 있다.

앞치라닥치라 하는 승부 속 ‘최하위 후보’ KIA가 강력한 다크호스로 변신하고 있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빠른 발 이용 치고 달리기·더블스틸... 공격야구 변신 천적 삼성 꺾고 두산에 워닝시리즈... ‘4강 전력’ 급부상

윤석민, 흑독한 신고식

트리플 A 첫 등판 2.1이닝 9실점...3회 조기강판

윤석민(볼티모어)이 흑독한 미국 데뷔전을 치렀다. 2.1이닝 9실점이 첫 공식 등판 기록으로 남았다.

윤석민은 9일(한국시간) 미국 버지니아주 노퍽 하버파크에서 열린 트리플 A 그윈nett 브레이브스(애틀랜타) 홈경기에서 2.1이닝 동안 1개의 피홈런 포함 11개의 안타를 맞으며 3회 조기 강판됐다. 9점 모두 자책점으로 탈삼진은 없었다.

선두타자 호세 콘스타자와 풀카운트까지 가는 승부 끝에 유격수 팡블로 원아웃을 만든 윤석민은 토드 케닝햄을 2루 팡블로 처리했다. 하지만 조이 테르도슬라비치에게 좌전안타를 맞으며 첫 피안타를 기록한 뒤 4번 어네스터 메하이의 승부에 나섰다. 초구로 스트라이크를 잡았지만 볼쪽으로 높게 제구된 공이 좌측 담장을 넘어가면서 2실점을 했다.

1-2로 뒤진 2회에 선두타자 마크 해밀턴을 볼넷으로 내보내는 등 제구가 좋지 못했다. 투 타자를 우익수 플라리로 처리하며 투아웃을 만들었지만 콘스탄자에게 좌익수 키를 넘기는 2루타를 맞았다. 케닝햄의 적시타가 이어지면서 1-4가 됐다.

3회는 윤석민에게 악몽의 이닝이 됐다. 1루수 옆을 빠지는 테르도슬라비치의 안타로 악몽이 시작됐다. 8번 벤투코르를 1루수 플라리로 잡아낼 때까



지 5타자에게 연속해 안타를 맞으며 휘청거렸다. 결국 윤석민은 1사 1·3루에서 그리니에게 좌익수를 넘기는 2타점 2루타를 맞은 뒤 에디 감보아와 교체됐다.

우려가 현실이 됐다. 윤석민은 7일 선발로 예고됐었지만 케빈 가우스먼의 메이저리그 대기과 비 때문에 두 차례 등판이 연기되면서 9일에서야 마운드에 올랐다.

시범경기 때도 늦어진 계약과 비자 발급 일정, 비 때문에 실전을 제대로 치르지 못했던 만큼 정상 컨디션은 아니었다. 이날 윤석민이 던진 공은 57개로 스크라이크 39개, 볼 18개였다. 전체적으로 제구가 높게 되면서 안타를 당했다. 무엇보다 직구 스피드가 나오지 않으면서 어렵게 경기를 풀었다. /김여울기자 wool@

추, 오늘도 ‘펼 펼’

보스턴전 3타수 2안타 2볼넷 2득점

‘추추 트레인’ 추신수(텍사스 레인저스)가 하루 네 차례나 출루하며 메이저리그에서 손꼽히는 톱타자의 실력을 유감없이 드러냈다.

추신수는 9일(한국시간) 매사추세츠주 보스턴의 퀘베티파크에서 열린 보스턴 레드삭스와외의 방문경기에서 1번 타자 좌익수로 출전해 볼넷 2개를 골라내고 3타수 2안타, 2득점, 1타점을 올리며 맹활약했다.

시즌 네 번째 멀티히트(한 경기 안타 두 개 이상)를 기록하며 네 경기 연속 안타 행진을 벌인 추신수의 타율은 0.345까지 치솟았다. 전날 첫 장타를 3루타로 장식한 데 이어 이날은 2루타를 때리는 등 장타 생산력에도 불이 붙기 시작하는 모습이다.

올 시즌 ‘좌완 투수 공포증’을 씻어낼 기회를 보이는 추신수는 이날도 보스턴 선발인 좌완 켈릭스 듀브론트를 완벽히 공략했다. 추신수는 1회 첫 타석부터 볼넷을 골라 걸어내갔다. 1회에는 후속타가 터지지 않았지만, 3회부터는 톱타자 추신수의 활약에 중심 타선도 힘을 내며 활발한 공격이 펼쳐졌다. 1-0으로 앞선 3회 1사에서 추신수가 듀브론트의 커터를 공략해 좌익수 방면 안타를 만들자, 그동안 침묵하던 3번 프린스 필더가 2루타를 때려 추신수를 홈으로 불러들였다. 텍사스는 투수진의 난조 속에서도 10-7로 승리했다. /연합뉴스

SINCE 1989

이태리 가구 전문점

NAVER **홍스페이스** 광주광역시 동구 장동 58-15

☎1899-0240 **홍스페이스** 가구빌딩